

피오리움 개관 1년... 복합문화 거점 자리매김

남원시,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 '시민·관광객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남원시가 35년 가까이 방치된 폐콘도를 복합 문화 거점으로 되살린 피오리움이 개관 1년을 맞았다.

피오리움은 단순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이 아니라, 남원관광지 중심부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바꾼 사례다. 1984년 관광지 지정 이후 노후화가 이어졌고, 경관 저해와 안전, 관광동선 단절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남원시는 이 공간을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오랫동안 폐허처럼 남아 지역의 흉물로 여겨지던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바꿨다.

남원시 마추한 여건은 지방 소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약화, 높은 지역별 비중, 노후 주택 증가 등 구조적 한계 속에서 관광지 중심부의 방치 공간은 도시 이미지와 관광 여건, 시민 문화 이용 여건까지 영향을 미쳐 왔다.

남원시는 재정 문제로 중단된 민간개발 부지를 장기 협상 끝에 매입해 공공화했고,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92억 원을 확보, 폐자원을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방치된 공간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단절된 관광 동선을 보완했다.

달빛정원과 피오리움은 기존 폐콘도 구조체를



남원시가 35년 가까이 방치된 폐콘도를 복합문화 거점으로 되살린 피오리움이 개관 1년을 맞았다.

활용한 재생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했으며,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다시 활용해 방치된 시설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등 연 면적 3,741㎡ 규모로 폐자원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쓰는 방식으로 공간을 바꿨다.

개관 1년 동안 피오리움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약 13만 명이며, 매표 입장객은 8만 명, 누적 회원 가입자는 7,800명, 재방문은 7,200명 수준으로 멤버십 활성화율은 92%이며, 장기간 방치된 폐자원이 실제 방문 수요 공간으로 바뀌었고, 반복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피오리움을 유류지원 활용의 대표

모델로 보고 있으며, 인근 시군으로 확산 가능한 폐자원 재생 사례로도 판단하고, 지방 소도시의 쇠퇴 문제를 보전 차원에만 두지 않고 문화와 관광, 공간재생, 지역경제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피오리움 개관 1년은 방치된 공간도 정책 시민이 함께하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앙집중 성장 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지방도시가 스스로의 공간과 자산을 다시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달빛 아래 깨어난 익산백제왕궁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역대 최대 7만여 명 방문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이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익산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백제왕궁(왕궁리유적)과 금마 일원에서 열린 국가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 야행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최우수 야행'에 선정됐으며,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도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경쟁력을 인정받아 왔다. 올해도 3일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높은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야행은 '달빛 아래 깨어나는 백제왕궁의 밤'을 주제로, 1,400여 년 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너른 백제왕궁 전역을 수놓은 야간조명은 방문객들에게 밤의 낭만적인 정취를 선사했다. 특히 백제왕궁 내 왕의 정원(정원유적)을 최초 공개해 숨겨진 역사 공간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백제왕궁을 무대로 펼쳐진 '8야행' 테마의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고른 참여가 이어지며 완



성도를 높였다.

특별 초대성 선생의 역사 해설 특강은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투명 텐트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감성 텐트'를 비롯해 △풍등에 소원을 담은 '백제왕궁 달빛기원' △천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천년 기원을 담은 탑돌이' 등도 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또 올해 처음 선보인 △익산백제 골든벨 △익산백제 보물찾기 등 신규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야행은 익산고도한눈에(愛)세계유산센터와 금마 지역 상권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읍시, 지역 문화유산 보호·체계적 관리 최선

심의위원회 열고 향토문화유산 2건·관리 대상 우물 3건 신규 지정

정읍시가 지역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향토문화유산 2건(농제, 송연손 신도비)과 관리 대상 우물 3건(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을 신규 지정했다.

향토문화유산은 국가지정이나 시·도 지정 문화유산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대상을 시·군 단위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고부면 '농제'와 철보면 '송연손 신도비'다.

농제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함께 호남 최대 곡창지대를 일군 '국중삼호(國中三湖)' 중 하나로, 최근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이전 축조 가능성이 제기된 수리 시설이다.

송연손 신도비는 조선 중종의 사부였던 송연손(宋演孫, 1460~1508)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551년 건립된 비석이다. 세계유산 무성서원 인근 여산 송씨 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리 대상 우물로 교동마을 우물, 이화담 우물, 내정마을 우물 등 3건도 추가 지정했다. 새롭게 지정된 교동마을 우물은 정(井)자형 석축 구조로 깊이가 깊고 하부는 원형 석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고사부리성과 고부향교 등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이화담 우물은 생화차거리 등 관광 자원과 연계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내정마을 우물은 축조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군산일요화가회 단체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8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군산일요화가회 단체전 '빛나는 동행 33년 - 함께 건너 온 계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군산일요화가회의 오랜 활동과 예술적 여정을 바탕으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감성을 담아낸 회화 작품 33여 점을 선보인다.

군산일요화가회는 창립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시민과 예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미술 동호회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순자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2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한 자연 풍경과 내면의 정서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야외 스케치를 통해 포착한 생생한 색채와 계절의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여운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 29일 '꽃의 계절'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29일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꽃의 계절'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명(淸明)과 곡우(穀雨)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자생하는 꽃들로 구성된 압화스티커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압화책갈피 만들기 체험은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 지하1층 열린 마당에서 진행되며, 투호와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은 박물관 지하1층 야외마



당에서 진행된다. 한편 어진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운영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는 회가 있는 날에는 경기전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봄날 야외 콘서트 '썬데이 피크닉' 성황리 개최

군산시립예술단이 지난 26일 군산예술의전당 야외 광장에서 열린 2026년 광장 콘서트 '썬데이 피크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공연에는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단원 41명이 참여해 4월의 계절감에 어울리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를 시작으로, 팔레스트리나 'Time to Say Goodbye',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OST, 버스커버스의 '빛꽃 엔딩'까지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헌 남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